

성인 여성의 정면 체형별 사이즈 스펙의 제안

최 유 경 · 이 순 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Proposal of a Size-Spec. for Adult Women

-According to their Frontal Bodytype-

Yoo Kyung Choi · Soon Won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2. 23 접수)

Abstrac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new size-spec. which was applied to four frontal bodytype -X, Y, A, and H type- of adult women. Control dimensions of the upper garments were stature, bust girth and hip girth. And those of lower garments were waist girth and hip girth. To establish the interval of the control dimens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ere used. By distributing the data of 486 subjects, a new size-spec. was proposed. According to the new size-spec., in case of upper garments, about 45.7% of subjects were covered by 37 size-specs. and lower garments, about 85.9% were covered by 36. The strong point of new size-spec. is to consider the formal feature of each bodytypes. So, by trying to apply the new size-spec. to ready-made garments, comfort and fitness of those are satisfied.

Key words: size-spec, forntal bodytype, control dimension; 치수 규격, 정면 체형, 기본 부위

I. 연구의 의의

효율적인 의복치수체계의 관리는 개인이나 기성복 업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체 측정 자료를 관리하고 의류치수 규격을 설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복의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에 처음으로 공업진흥청에서 KS 의류치수규격을 만들었고, 1990년 이를 대폭 수정하였으며, 1998년에는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새로운 의류 제품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기존의 의류 치수 규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기성복의 적합성 및 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전은경, 1984; 이경미, 1991; 박상희, 1994)와 새로운 표준 치수 규격의 설정을 위한 연구(공민희, 1981; 도재은 외 3인, 1985; 손희순, 1989; 이혜영, 1992)를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치수 규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체형을 분류할 때 드롭이나 Rohrer 지수 혹은 신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 항목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체형을 신체 특정 부위의 크기의 차이에 의해 분류하는 것으로 치수 규격에 체형의 형태적 특징을 반영시키지는 못하였다. 또 이 연구들

이 제시하고 있는 커버율은 몇 개의 신체 부위의 급간 내에 포함되는 개체 수와 전체 개체 수와의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신체는 같은 크기를 가진 집단 내에서도 각 개체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커버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반드시 적합성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의복을 설계하려면 크기에 의해 체형을 분류하고 단순히 치수를 증감시킨 규격보다는, 신체의 형태를 고려하고 체형별로 크기를 분류하는 다양한 치수 규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최유경·이순원, 1997)의 체형 분류 결과를 토대로 기성복 치수 규격을 설정하여 보고자하며, 이는 형태가 같은 집단 내에서 크기를 구분하여 규격을 설정한 것이므로 치수 적합성의 정도는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대상 및 연구 항목

연구 대상 및 연구 항목은 이전의 보고문(이순원·최유경, 1997; 최유경·이순원, 1998)과 동일하므로 생략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결과 분석

1. KS 의류 치수 규격

1981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KS 의류치수 규격은 키는 150~170cm 범위에 5cm, 가슴 둘레는 76~97cm 범위에 3cm, 허리둘레는 59~80cm 범위에 역시 3cm 간격으로 치수를 설정하여, 키가 증가함에 따라 가슴둘레나 허리둘레도 일률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규격에서는 기본 부위의 크기를 일률적으로 증감시킴으로써 키는 작으면서 다른 부위의 크기가 크거나, 반대로 키는 크면서 다른 부위의 크기는 작은 대상들을 커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하의뿐만 아니라 상의 제작 시에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엉덩이 둘레가 기본 부위에서 빠져 있고, 체형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에 새로운 치수 규격에서 개선되었다. 개정된 치수 규격에서는 의류를 과거 품목별로 분류하던 것을 그룹별로 분류함으로써 의

류 치수 규격을 단순화하였고, 호칭법도 기본 신체 치수 자체를 표기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치수 규격에는 의류 종류별로 기본 신체 부위와 각 기본 부위의 치수 간격만 제시되어 있고, 그 범위와 각 기본 부위의 조합에 따른 구체적인 치수 체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의류 생산 업체가 기본 부위와 치수 간격만을 참고로 하여 다양한 치수 규격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융통성 있는 치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전 국민의 신체 측정치가 기본 부위의 치수 간격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함께 제시하여 준다면, 생산업체가 기성복을 만들 때 생산해야 할 치수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0년 개정된 KS 의류 치수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부위별 치수 간격 내에 본 연구의 측정 대상자들을 도수 분포시켜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0.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공업진흥청, 1990)가 있기 때문에 대각선의 분포를 하고 있지만, 같은 키에 대해서는 150~165cm의 4개구간 모두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가 작은 값에서 큰 값에 걸쳐 비슷하게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1년에 제정된 의류 치수 규격의 문제점과 같이, 키는 작으면서 다른 부위는 크거나 키가 크면서 다른 부위는 작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한 의복 치수가 설정되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0년 개정된 KS 의류 치수 규격이 의복 종류별 기본 부위에 대한 치수 간격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복 생산업체들이 이 규격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성인 여성의 체형을 고려하여 드롭(drop; 엉덩이둘레-가슴둘레)에 따라 기본 부위의 신체 치수를 조합해서 제시하였다(공업진흥청, 1990). 그러나 드롭은 체형을 크기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정면 체형의 분류 결과(최유경·이순원, 1998)는 형태를 우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결과를 <표 2>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표 1〉 KS 의류치수규격(1990년 개정)의 기본 부위의 치수 간격에 대한 본 연구자료의 빈도분포

ST.	BG.		76	79	82	85	88	91	94	97	ST.	BG.		76	79	82	85	88	91	94	97					
	HG.	HG.																								
150	80		3		1						165	80														
	82											82														
	84		3	4	2	1						84														
	86		3	2	2	7				1		86	1			1										
	88			1	4	3	3	1	1			88	3	1	1	1										
	90			1	4	1	4	2	2	1		90	1	4	8	3										
	92			2		2	5	2	3	2		92			2	2	3									
	94						3	3	6			94			1	2	2					1				
	96					1		3	1	1		96					1	2			1	1		1		
	98											98					1							1		
	100											100					1					2				
	102											102											2			3
	104											104														
	115									2		115														
155	80							1			170	80														
	82	1		1						82																
	84	3	8		2					84																
	86	4	3	5	4					86																
	88	1	1	7	7	4	4	1		88				1												
	90		2	5	9	9	5	3	1	90				1												
	92		1	1	13	8	6	3	3	92				1	2	2										
	94				4	7	7	6	4	94				1	2											
	96			1	1	1	3	1	8	96				1												
	98				1	1	3	2	5	98																
	100						1	1	7	100																
	102								2	102											1	1				
	104								1	104																
	115									1		115														

(단위 : cm)

· ST—stature · BG—bust girth · HG—hip girth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것은 공업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드롭 12~0cm 범위 안의 인원을 표시한 것인데, 이 범위에 많은 인원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 범위 바깥, 특히 음의 값에도 많은 인원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공업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공업 진흥청, 1990)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부분이다. 또 드롭 12~0cm내의 각 간격별로 보면 4개 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각 신체 형태별로는 정면 체형 X형과 Y형은 드롭 4~8cm 구간에, H형은 0~5cm 구간에 비교적 많은 수가 분포하고

〈표 2〉 정면 체형과 드림의 분포

드림 체형	-11	-10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X형			1				1	2	3	3	6	4	5	9	6	11	12	7	13	9	4	5	4	5				
Y형				1	3	1	2	2	7	5	7	11	4	12	15	15	17	8	7	7	7	4	1	1	1			
A형	1	1	1			1	3	4	1	4	7	6	4	6	10	8	7	9	12	7	4	4	1	1			1	
H형				1	3	5	3	9	6	7	10	16	7	13	17	12	4	4	5	6	3	1	1					

(단위 : cm)

있지만, A형은 대체로 전 구간에 고른 분포를 보여 체형마다 인원수가 많은 구간이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본 부위의 치수 간격 설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신체의 형태를 고려하여 분류한 집단별로 각기 다른 치수 간격을 설정함으로써 기성복의 맞춤새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수 규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의복 종류별 기본부위와 치수간격의 설정

1990년 개정된 KS K 0051 여성복 치수 규격은 먼저 착용 구분으로서 상의류 및 전 신용 의류와 하의류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피트되는 정도와 피트성이 필요한 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여성복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피트성이 요구되어 맞춤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의복 종류, 즉 상의류 및 전신용 의류에서는 정장용 숙녀복 상의나 재킷, 코트, 원피스 등, 하의류에서는 정장용 숙녀복 하의나 스커트, 슬랙스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기본 부위에는 상·하의 각각 가슴둘레-엉덩이둘레-신장의 3원 분류 법과 허리둘레-엉덩이둘레의 2원 분류법을 적용하여 체형별로 치수 간격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 KS K 0051 여성복 치수 규격에서는 피트되는 정도와 피트성이 필요한 부위에 따라 치수 간격이 다른데, 이 중에서 본 연구가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의 각 부위별 치수 간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가 각각 3cm, 3cm, 2cm, 5cm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체형 별로 치수 간격을 설정할 때, 각 체형 별로 기본 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 부위의 치수 간격

은 체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자 한다.

3. 체형의 구분

신체의 형태를 고려한 새로운 의복 치수 규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수로 체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분류된 체형의 수가 많으면 각 체형 별로 의복 치수의 적합성은 향상되겠지만 생산성에 문제가 있고, 유형의 수가 너무 적으면 치수 규격에 신체의 형태적 특징이 반영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체형 분류는 이전의 연구(최유경·이순원, 1998)에서 정면 체형 분류 시 군집 분석을 통하여 적정 개수로 제시된 바 있는 정면 체형의 4개의 유형, 즉 X, Y, A, H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분류된 유형들은 신체 정면의 어깨에서 엉덩이까지의 형태를 문자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신체의 형태를 표현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인식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4개 유형의 형태적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X형은 전체 높이 및 하반신의 길이가 길고 솟은 어깨이며 어깨너비와 엉덩이너비를 두 축으로 하여 정면 실루엣이 X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Y형은 하반신의 너비가 작고 하반신의 길이가 가장 짧으며 하반신에 비해 상반신이 넓은 Y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A형은 정면의 너비가 대체적으로 작으면서 어깨가 좁고 처졌으며 상대적으로 하반신 부위의 너비는 넓은 A자 형태이다. H형은 상·하반신 모두 키에 대한 너비의 비율이 가장 크며, 특히 허리너비의 비가 가장 커서 어깨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옆선 실루엣의 굴곡이 가장 밋밋한 H자 형태를 하고 있는 집단이다.

<표 3> 정면 4개체형에 대한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본 부위	X형(110명)			Y형(138명)			A형(103명)			H형(133명)		
	평균	표준 편차	범위	평균	표준 편차	범위	평균	표준 편차	범위	평균	표준 편차	범위
키	158.30	4.78	148.8-169.6	156.77	5.12	145.3-169.6	156.72	4.34	147.9-169.5	155.33	4.31	145.1-167.1
	158	±5	145.5-170.0	157	±5	144.5-174.5	157	±4	147.0-171.0	155	±4	145.0-171.0
가슴둘레	85.92	6.04	71.5-100.0	84.46	5.83	72.0-98.7	87.94	6.34	74.9-107.7	90.80	6.23	78.8-103.5
	86	±6	71.0-101.0	84	±6	69.0-99.0	88	±6	73.0-109.0	91	±6	76.0-106.0
허리둘레	68.55	5.03	58.9-84.1	67.77	5.16	57.4-79.0	71.02	5.81	59.5-85.2	73.98	6.12	60.2-90.4
	69	±5	56.5-86.5	68	±5	55.5-80.5	71	±6	56.0-86.0	74	±6	59.0-95.0
엉덩이둘레	91.37	3.95	82.0-102.6	89.47	3.89	79.9-99.8	92.21	4.56	80.3-110.6	92.93	4.48	82.5-107.0
	91	±4	81.0-105.0	89	±4	79.0-105.0	92	±5	79.5-114.5	93	±4	79.0-107.0

(단위 : cm)

4. 치수 체계의 범위 결정

의복의 기준 부위별 치수 간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소비자의 행동 이론을 기초로 한 경험과 설계의 기능을 고려하여 "Visual Fit Judgement"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여기서 치수 간격의 설정은 경험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기본 부위별 구간 결정은 소비자들이 의류의 구매를 거부하지 않을 범위 (allowance) 내에서 구간을 설정해야 하는 바, 이 허용범위 (allowance)를 정하는 문제가 어려운 과제이며 이것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최경진의 2인, 1981).

손희순(1989)은 의복호수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기준부위별 호수 구간을 설정할 때에 기준 부위의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상한치, 하한치, 의복의 여유량 등을 참고로 하여 호수간 간격을 결정하였다. 간격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변이계수가 작으면 표준편차 값을 그대로 호수간 간격으로 하였고, 변이 계수가 클 경우는 KS 규격과 비교하는 한편 여유량을 감안하여 간격의 크기를 임의로 KS 규격보다 크게 혹은 작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최경진 등이 설명하고 있는 '경험적인' 방법이며, 중년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값을 구하고 호수 간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표준편차나 변이계수의 범위가 크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각 체형별로 산출된 기본 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대로 치수 간격을 설정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각 체형별 기본 부위의 표준편차와 KS 규격의 치수 간격을 비교해 본 결과 KS 규격에서 피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의 치수 간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치수 간격이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체형별로 구간이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넓은 분포의 치수를 적정 개수의 치수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개의 정면 체형에 대한 기본 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기본 부위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2)를 급간으로 하여 최소 값과 최대 값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결정하였으며, 표에서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 기본 부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치수의 범위를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평균 키 160cm, 표준편차 4cm의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160±표준편차/2), 즉 158~162cm의 범위를 말한다.

5. 체형별 의류 치수 규격의 제안

먼저 상의의 기본 부위에 대하여 치수 구간 별로 정면 4개체형에 대하여 해당 인원의 빈도 분포를 <표 4>에서 <표 7>에 걸쳐 제시하였다.

표에서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이 해당 집단의 전체 인원수에 대하여 4% 이상의 인원 수를 나타내는

〈표 4〉 X형 체형 여성의 상의 기본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ST.	BG. HG.						합계
		74	80	86	92	98	
148	83						
	87		1				
	91			1	1	1	
	95						
	99						
	103						
153	83	2	1				
	87		3	3	2		
	91		2	6	1		6
	95			4	2	1	4
	99					1	
	103						
158	83		1				
	87	1	5	3			5
	91		6	10	5		21
	95			2	2	1	
	99				2	2	
	103						
163	83						
	87		3				
	91		5	12	1		17
	95			4	1		4
	99				1	1	
	103					3	
168	83						
	87	2					
	91		1	2			
	95		2				
	99						
	103						
합계			16	36	5		57

(단위 : cm)

· ST—stature · BG—bust girth · HG—hip girth

구간이며, 이것을 각 체형별 상의의 3원 분류법에 의한 기본 부위의 치수 규격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4% 이상의 구간으로 전체 연구 대상 즉 성인 여성의 45.7%를 커버하며, 규격의 개수는 37개이다.

여기서 정면 체형별 치수 규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151~153cm 범위의 비슷한 키에 대하여 가장 작은 치수의 경우 Y형은 가슴둘레 74.5~80.5cm, 엉덩

〈표 5〉 Y형 체형 여성의 상의 기본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ST.	BG. HG.						합계
		72	78	84	90	96	
147	81		2				
	85		4	2			
	89		1	2			
	93						
	97						
	101						
152	81		1				
	85	2	6	5			11
	89		2	6	4	2	6
	93		1		3	2	
	97				2		
	101						
157	81	1					
	85		8	1			8
	89	1	3	7	3	2	7
	93			10	7	2	17
	97			2	1	2	
	101					1	
162	81						
	85		3	2			
	89		5	10	1		15
	93			1	2	2	
	97				3	2	
	101						
167	81						
	85			1			
	89		1	4			
	93			3			
	97						
	101						
172	81						
	85						
	89			1			
	93						
	97						
	101						
합계		19	38	7		64	

(단위 : cm)

· ST—stature · BG—bust girth · HG—hip girth

이둘레 83~87cm 범위 의 치수가 필요한 반면, H형은 가슴둘레 88~94cm, 엉덩이둘레 91~95cm 범위

〈표 6〉 A형 체형 여성의 상의 기본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ST.	BG.		76	82	88	94	100	106	합계
	HG.								
148	82								
	87	1	2	1	1				
	92			1	1	1			
	97								
	102								
	112								
153	82	1							
	87		3	2	1				
	92		4	11	2				15
	97			1	1				
	102				1	1			
	112								
157	82		1	1					
	87	3	4	2					4
	92	1	2	6	4	1			10
	97			1	3	2	1		
	102								
	112					1			
161	82								
	87		3						
	92	1	4	3	1	2			4
	97			4	1	1			4
	102					2			
	112								
165	82								
	87		1						
	92	1	1						
	97			2	2				
	102			1					
	112								
169	82								
	87								
	92		1	1					
	97								
	102								
	112								
합계			12	21	4				37

(단위 : cm)

· ST—stature · BG—bust girth · HG—hip girth

의 치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깨가 상대적으로 넓고 가슴부터 엉덩이까지는 점차 가늘

〈표 7〉 H형 체형 여성의 상의 기본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ST.	BG.		79	85	91	97	103	합계
	HG.							
147	81							
	85	1						
	89		2	3				
	93		1	1				
	97		1			1		
	101						1	
	105							
	합계							
151	81							
	85	2	1					
	89	1	3	1	1			
	93		3	4	4			8
	97			2			2	
	101						1	
	105						2	
	합계							
155	81							
	85	3	1					
	89		4	4	1			8
	93	1	4	8	5			17
	97			5	7	2		12
	101				3	2		
	105			1				
	합계							
159	81	1						
	85	1						
	89	1	4	1				4
	93		2	9	2			9
	97		1	2	5			5
	101				1			
	105							
	합계							
163	81							
	85							
	89	3	2	1				
	93		1	1	1			
	97				1		1	
	101			1				
	105							
	합계							
167	81							
	85							
	89							
	93		1					
	97							
	101							
	105							
	합계			12	30	21		

(단위 : cm)

· ST—stature · BG—bust girth · HG—hip girth

〈표 8〉 X형 체형 여성의 하의 기본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WG. HG.	59	64	69	74	79	84	합 계
83	3	1					
87	2	16	4	1			29
91	2	14	30	8			52
95		1	8	8	2		16
99				3	4		4
103					1	2	
합 계		30	42	16	4		92

(단위 : cm)

· WG—waist girth · HG—hip girth

〈표 9〉 Y형 체형 여성의 하의 기본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WG. HG.	58	63	68	73	78	합 계
81	3	1				
85	6	19	9			34
89	1	16	26	8	3	50
93		4	12	11	6	29
97			2	6	4	6
101				1		
합 계	6	35	47	25	6	119

(단위 : cm)

· WG—waist girth · HG—hip girth

어지는 특징을 가진 비교적 왜소한 체형인 Y형과, 가슴부터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밋밋한 실루엣을 지니면서 비교적 뚱뚱한 경향의 H형의 형태적 특징이 치수 규격에 반영된 결과이며, 따라서 각 체형별로 각기 다른 치수 규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정면 4개 체형에 대한 하의의 기본 부위에 대한 치수 구간별 빈도 분포를 <표 8>에서 <표 11>에 나타내었다.

상의와 마찬가지로 각 체형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수에 대하여 4%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구간을 음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때 전 인원수의 85.9%를 커버하고, 규격의 개수는 36개이다. 하의는 상의와는 달리 2원 분류법을 썼기 때문에 커버율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의의 경우도 각 체형별 치수 규격에 형태상의

〈표 10〉 A형 체형 여성의 하의 기본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WG. HG.	59	65	71	77	83	합 계
82	2		1			
87	4	14	4	2		22
92	1	10	27	13		50
97			6	8	5	19
102		1	1	2	1	
112					1	
합 계	4	24	37	21	5	91

(단위 : cm)

· WG—waist girth · HG—hip girth

〈표 11〉 H형 체형 여성의 하의 기본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WG. HG.	62	68	74	80	86	92	합 계
81	1						
85	3	6					6
89	2	17	11				28
93		12	24	12			48
97		1	13	14	2	1	27
101				4	5		5
105				1		2	
합 계		35	48	26	5		114

(단위 : cm)

· WG—waist girth · HG—hip girth

특징이 반영되었는데, 가장 작은 치수가 A형의 경우 허리둘레 56~62cm, 엉덩이둘레 84.5~89.5cm로 두 부위간의 차이가 28cm인 것에 비하여, H형은 허리둘레 65~71cm, 엉덩이둘레 83~87cm로 두 부위간의 차이가 17cm 정도였다. 이는 상반신은 왜소하면서 엉덩이부위가 상대적으로 큰 A형과, 상·하반신의 실루엣이 대체로 밋밋하여 굴곡이 없는 H형의 경우 서로 다른 치수 규격으로 하의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IV. 제 언

이상에서 정면 4개 체형에 대하여 각 체형별로 상·하의의 기본 부위의 치수 간격을 결정하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파악하여 일정 비율 이상

을 나타내는 구간을 의류 치수 규격으로 제안하였다. 이 치수 규격 안은 기본 통계량을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기성복 생산업체에서 체형을 고려하여 의복을 생산하고자 할 때, 생산할 의류의 치수와 분량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해당 인원이 수적으로 작아서 규격에 포함되지 못한 구간도 업체에 따라 치수의 크기 면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고자 할 때 시장성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대로 제시하여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은 인원수의 치수 구간은 인접 구간과 합친 후, 적절한 치수 조절에 의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새로 제안한 의류 치수 규격의 활용 방안으로서 이전의 보고문(최유경·이순원, 1998)에서 언급한 정면 체형과 연령을 관련지어 보면, 생산업체가 목표집단으로 하고 있는 연령 대에 따라 참고해야 할 치수 규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류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와 30대 전반까지는 X형과 Y형이 가장 많으며,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Y형, A형, 그리고 H형이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그리고 50 대에서는 A형과 H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므로 생산업체는 자신들이 목표 집단으로 하고 있는 연령 대의 신체적 형태의 주된 특징을 파악하고, 연령 대에 따라 생산하는 기성복의 치수 간격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면, 성인 여성들이 의복을 구매하고 착용하면서 느끼는 치수 부적합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공업진흥청(1990). 『의류제품의 호칭 및 치수규격 단순화』 국립기술품질원(1998). 『국민표준체위 조사 결과에 따른 체형 분류 연구(의류제품의 체형별 표준화 방안 연구)』
- 김구자(1991). 남성복의 치수규격을 위한 체형 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구자·이순원(1997). 기성복 제작을 위한 성인 남성의 사이즈 스펙의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1(7), 1247-1257
- 김기영·전명식(1994). 『SAS 군집분석』서울: 자유아카데미
- 손희순(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원·최유경(1997).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신체 형태 구성 인자의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1(2), 292-301
- 최유경(1997). 여성 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유경·이순원(1998). 성인 여성의 정면 체형에 대한 형태적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2(1), 80-88
- 服部由美子(1990). ウェストラインから大腿部へかけての下半身形態類型化に関する考察-若年女子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41(12), 1195-1204
- 平澤和子, 長井久美子(1993a). 成人女子の體つきの分類(第1報) - 胸部形態の特徴. 日本家政學會誌, 44(7), 581-588